



전 북한정부 문화선전성

차관 정상진 선생.

정상진 선생은 1918년 5월 5일에 원릉변강
 면내곡 불타지보쓰도크에서 탄생하시었다. 소련
 지역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문화중심지이며, 원릉변강에서
 공업, 산업 문화중심지 이큰 함구도시인 불타지보쓰도에는 한
 인 초학, 초중 및 고중까지 있는 광계를 정상진 선생은
 고향 도시에서 1936년에 고중까지 졸업하시어 그해에 원릉
 에 유일한 한인 사대 역을 담당하여 일하시었다. 정상진 선생은
 중학교 학창시절에 아주 열성적으로 교내 각종 사회단체들의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다. 그의 사회단체들에서의 사업은
 단지 그 학교내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원릉 변강 범위에서 전
 은 한인 학생들 중독에 광범히 알려져 있었다. 정상진 선생은 매년
 원릉 변강 범위에서 조직 진행되는 소년단 "스콜트" (소년단 대회)
 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그의 강력한 조직 지휘를 보였으며,

대년 동기방학이면 늘러히 자기 학교 학생들의 힘으로
 각종 연극 예술극단과 각종 체육단들로 조직하여가지고
 각급, 농촌에 있는 궁벽한 농촌들에 새로운 문화적 위풍을
 보급할 목적으로 문화공연 체육연회들로 조직하면서 아적
 감자고 있던 한인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당시에
 불타지보소또크 소년단 대회에 참가하시었던 남녀 여학생들
 과 또 그 당시에 함바콥쓰크시나 우부리쓰크 시에 살고 있던
 여러 어르신들은 현재까지도 그 당시 느끼진 감상들에대
 하여 인상 깊게 이야기 하곤 한다. 정상진 선생은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함으로써 누구든지 한번 그와 대면한분은
 전부다 그분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때문에 항상
 정상진에게는 아귀가 가까운 친구들이 많다.

정상진 선생은 원동변강 불타지보소또크에서 입학한
 사범대학 어문학부를 1940년에 가사호 공화국 크슬로로
 다 시에서 졸업하였다. 이것은 한인에 대한 강제적국정책
 때문에 한인사범대학이 크슬로로다에 이동하였기 때문이
 었다. 사대를 졸업한후 정상진은 공화국 교육장에서 파견하는
 데로 드살라가스 시 고등 어문학교 교원으로 일하였다. 대학원
 한후 일년을 일하자 소비에트 연방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
 작 되었다. 원래 함구르 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학
 생사절을 불타지보소또크 함구에서 지낸 정상진 선생은
 자나 개나 항상 붉게 바라보던 해군도, 그들은 모로다
 키라 큰적하고는 "개 생긴 뭍에 너은 하지 겁은 해군
 뭍은 (~~정상진이 함성~~) "너도 한번 해병대에 복무 하면서 저런
 복장 위나 입은 어떤" 하는 것은 항상 정상진의 공상이었어
 다 그러나 한인들은 조국전쟁의 위급한 시기에도 군대 복무
 에 초빙되지 않은것이 큰 화거되었다. 그러던 정상

생은 수석 사당위원회 시군사중원부에 조국전선에 자원
하여 나가겠다는 충원을 제출하였다.

그렇게 끝나자 마침내 1945년 3월에 정상진 선생
은 노병직에 그의 모국대로 태평양 소군 해병중심지인 불
라리보노프크 기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잔병이 다 끊어진
후에 남의에 군복을 착용 않은 정선생은, 초시기 군대복용과
아주 바빴었다. 물론 정선생이 장차 수행할 임무는 전사 임무가
아니었다. 군인은 군인답게 상량에게 물어볼 줄 알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하니까, 상량에게 접근할 줄 알고, 정례 들릴 줄 알며,
돌아서 도루복을 알아야 한다. 또 군인은 군인답게 걸을 줄 알며,
앉거나 서서 규정대로 정례 들릴 줄 알며, 또 정례 받을 줄 알
아야 하는 법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불어 즉 대열 규정과 더불어
내부 규정, 전후 규정, 등을 연구한다. 사격장에 사격하려고,
또 정치상황에도 다녀야 하였다. 어렵게 분주하고 복잡
한 환경에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5월 9일에 독소전
쟁은 끝나고 8월 8일이 도착했다. 독소 전쟁에서
승리한 소련은 전함국의 의무대로 일본제국에 전쟁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정상진 선생은 8월 1일 러역에 블라지
보노프크 해군기지에서 명령을 받고 코다란 군함에 올라 한후
태평양 쪽으로 나가 (일본) 동해로 남쪽을 향하여 항진 할 바
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바로 아침 5시경에 상륙
점에 가라 하고 다른 수병은 어뢰정, 수뢰정, 들쭉다라 바로
항진함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선생이 한 상륙점이 항진 항부구
에 도착하기 전 어뢰정, 수뢰정, 들쭉다라 항진 항부에
들어간 몇개의 군함으로 통과하면서 발연 독한을 통과시켜
수 1년에 연박을 허용했으며, 항공대는 부두 무거운에 부두하
서고 있는 상근들을 포격하여 항진 시은 원지 개척하듯 높음

뢰성리같이 천지를 진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다 쪽에서 4. 사격하는 함포소리와 함께 공중 포격소리와 동시에 연기, 분사음 청진 전 시너를 들어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순간을 리용하여 정선생이 한 상륙점은 어느것 청진 부대가 도착하고 871명의 해군 육전대는 직휘관 중좌를 비롯하여 (안전희 전후 대서)를 갖고 청진 부대에 올라와 전후 사열로 직휘관의 구령에 따라 전진하였다. 해병들의 기본 전후업무는 군함에서 상륙점에 가라라기 직전에 발사하와 같이; 청진 시너를 횡단하고 청진시 휘산에 올라가 삼림속에 전지를 형성하고 적의 반공격을 제압하며, 최후 아군의 부하산 부대의 발불음을 방조하여 한개의 군부대의 실력으로 조성함각은 안쪽 쪽으로 부하 공격하여 나오는 소련군 25군단 각 연함부대와 부대들이 지행할 수 있는 병력어뢰는 동시에, 적에게 있어서도, 적후에 갇혀한 무장도끼어뢰, 어뢰의 전후에 있어서도 치명적 타격이며 패망의 전제조건인것이다. 정선생 선생은 청진상륙점에 이르러 자기 동지들에게 두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상륙점에 오르기 직전에 부대장은 전체 구분대를 정렬하여 놓고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의 기본 임무는 청진시너에서 적의 어떠한 병력이 저항하던지간에, 또 자기 역량에 얼마나 잃어지던간에, 동지들 - 871명중, 40명이 남고, 20명이 남고, 단 10명이 남더라도 청진 휘산점에 올라, 거기에서 자리잡고 발불이든것이요. 전후로써 전진하는 과정에 물론 희생자가 발생할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말고 계속 급한속도로 전진 해야 하고, 희생자들을 최후 뒤따르는 위생부대가 처리할것이며 특히 주의 식히든것은 부대 총역원 정유리 ~~중위~~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시오. 적후에서 지방 민족 총화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시간이라도 전디기 바쁘니, 즉은 옥순이나
 한가질 것 이외¹¹하였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정선생의 등골에서
 는 땀이 주룩나왔다. 다음 상옥한다음 해병들의 전후서열
 을 짚어 4개의 공대로 자동총 구별대가 자동총과 우류한
 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뒤를 이어 정기관총과 방전차총, 방전
 차 우류한으로 무장한 디모가는 질화로 정기관총, 42 미리
 백척포도 몇문인가 뒤따라고 있었다. 자동총 구별대 전
 면에 적병의 조직적 집중적 저항은 별반 없었으나 4-5
 명, 6-7명 구별대의 저항과, 개별적 결사대들이 자동
 총과 우류한을 편지하여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상옥병
 들이 제 일 전후업무를 수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시 총 인원 88명 중 52명이 대열을 정리 총지휘관에게
 보고하였다. 상옥부대 지휘관 중좌중사는 어상정병을
 군함에 있는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해병들에게 다음과 같
 은 부대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총 인원 52명 중
 상옥 지휘관과 정씨 부지휘관 노좌에게는 레닌 훈장
 을 수여 하며, 다음 38명에게는 "적기 훈장", 그 나머지
 11명에게는 적성 훈장을 수여 할라는 말을 라디오로 받아
 전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정상진 선생도 적기
 훈장을 수여 받은 명예를 기리게 되었다. 이후 라남 쪽으로
 북히 조직적으로 수확에 걸쳐 적의 소 구별대들의 작기 후
 방에 기여든 적들을 청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바다가로 북
 히 무우히 상옥하고 있는 어군 해군 육전부대들의 맹공격에
 따라 매번 좌절되곤하였다. 정상진 일행상옥 부대는
 오전중 수확 공격을 받은 동시에 장거리적포사격에 일분도 눈
 코 뜰사어없이 항어 해세를 계속 보존하고 있다가 오후 2시
 경이 되자 북으로 북히 어군 육군 대연함부대들이 쳐들어
 오므로써 청진서를 방어하던 라남사단은 완전히 후방하고

황진시는 해방되었다. 황진 시인들은 소련 해방군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날 정상진 선생은 황진 시인들에게로 복귀 특별한 환영으로, 눈물겨운 악수로 많이 받았다. 검은 해군 군복을 입은 수많은 러시아 인들중에서 조선말로 깽깽 잘하는 한인 환영을 받던 황진 시인들은, 아 해방군들속에는 한인은 없다고 알고 정상진 선생을 시인들은 군복들속에서 데어 내리 하였으나, 상관과 같이 행군하는 정 선생은 눈물로 삼키며 눈물 젖어으나 대오에서 떨어질위없이 지휘관의 구령대로 걸어가면서 때로는 모자를 벗어 흔들기도 하였다.

황진시 뒤에 놀이 가로 막혀있는 산정을 차지한 정상진 일행 해군 상륙대는 그날 하루동안 전후 배세를 유지한 형편에서 낮시간을 보내고 다시 황진부두, 따적까지로 부두 항구들에게서 곡물어 타고 있는 배들로 말미암아 연기가 계속 물씩 물씩 나오는 연막을 두르고 나가 야침에 후고 들어온 상륙정에 다시 물라 하였다.

이렇게 육해공군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황진시는 완전히 1945년 8월 9일에 해방되고 그 해방의 승리를 고취하기 위하여 육군부대들을 시내에 남기고 해군들은 다시 바다가에 나가 황진부두에 적선들의 침입을 경계하면서 2일간 바다에 머물러 있던 다음 소련 해방대는 8월 11일에 원산항에 접근하였다. 이 때문에 이르니 원산항은 벌써 8월 9일 야침에 소련군 다른 해군부대들의 공격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때문에 정상진 일행은 원산항에서는 아무런 전후로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상륙하였다. 원산 시가지는 벌써 완전히 길어가 잡히고 소련군 사령부까지 조력되어 시가지에는 소련군 순찰 구별대들이 계속 돌고 있었다.

북한은 '조선군대의 경제적 역할'에 의하여 해방된지 일개월후 이 지부자 평양에는 조선군 25군단 사령부 외에 전북한의 영토와 인민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선군 인민 사령부를 소장 로마넨꼬의 지도 하에 조직하고 각 지방과 중앙에 이르기까지 임시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조선군 인민 사령부는 각급 인민위원회들과 밀접한 관계하에서 사탕하기 위하여 소련 의주 사령부들로 각 군, 시, 도 들에 조직하였었다. 원산에 도착한 정삼진 해군 중위는 원산시 경무부에서 책임총책임관을 하시면서 조선군들과 함께 시내 질서 유지 적안 통제, 임시인민 위원회에 일제 등사임에 대한 공화다가 원산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강계덕 선생의 요청에 의하여, 아직 조선군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조선국적도 접수로 늦어진 조선 경무부 사령관이 지시에 따라 원산시 인민 위원회 문화 교육부 직장으로 일하였다. 이것은 시 인민 위원회가 모든 일을 시 경무부 위주 사령관이 승인하는데서 만일 이리 하였기 때 까지 시 인민 위원회 책임 총책임관 하시면서 그의 역할은 시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과 다르지 않았었다. 정삼진 선생은 열심, 헌신적 후 아국 복귀 하게 일하였다. 이렇게 복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데 평양에서 전화로 지부가 내려왔다: 래일 아침에 수십 년 동안 조선 해방을 위하여 열제와 영웅 무쌍하게 싸우던 조선인민의 전설적 영웅 김일성이 군함을 타고 원산항에 도착하니 사탕들을 질서있게 조직하고 영광스럽게 맞이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격할 법에서 서린 환영 대회는 조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전화 지시가 시 인민 위원회에 내려오자, 조선 최고 사령부로 불어 역시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지시를 받은 시 경무부 위주 사령관 대좌는 그 즉시으로 정삼진 선생을 불러서 내일은 영웅을 맞이 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정상권 선생은 시인민회연회에 다시 드라와 영웅 영검은
 좋은 범회에서 하게되었리 때일에 시회원장, 복회원장 네
 성우, 보안부장 박영성등 네 명만 참가해야 된다고 전달하였
 다. 그 당시 정상권 선생은 사령관과 시인민회원장의 흥영으로
 접하여 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19일 오전 11시 경에 리와
 쓰린 화물선 "백부라호브" 호가 원산항에 복두어 언검되었던
 아래에서 맞응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전설경 영영어, 노로
 영영답게 생긴 사람이라고 말리면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을 하나 하나씩 골라보면서 김일성 장군이 어느 분인가를 물어보았다.
 내종이아 알고 보니 전설에서 들린 어대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
 새파란 농연어였다. 그 빨리산 일행에도 좀 나르 없고 좀 의심했
 지 보아도 리응화 노짜르 없었고, 최용전 대위, 김백 대위도 없었
 만 그들도 다 어시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어 원두라고 하지
 만 이 당시 김일성에게는 그 원두가 보배였지만 나의 이름을 자기
 에게 물어라 보니 그 보물어 걸어리였던 것이다. 이것을 본받아 그의
 아들 우리도 자기 본명은 내 잘리고 인민학교를 다감한 1953년에
 야 정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 또 몇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는
 자기가 한생한 고향도 내 잘리고 백두산 혁 밑에 귀촌집을 짓고
 그 집에서 자기가 한생하였다하여 세계 원민을 엮을게 보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도 력사의 사실을 외곡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이것도 주체 철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엇이든 다 제화
 놓고, 사람이 기본인데, 독재자가 마음대로 지시하면 다 된다고
 인정하면서 백두산 바위까지 깎아 내리고 자기 이름을 써기르
 현인이 분노할 정도 하면서 력사가 전혀 고쳐달리는데 ^개선사한 기호
 한 산천에까지 돈을 대어, 그것도 자기 원민을 녹임의 증거물로 만들
 려고 하고 있으니 원민들을 어느 때까지나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이상의 력사적 사실을 세계 원민은 다 알고 있거만 김일성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가 생각하는 모양이지?

정선생은 1945년 9월 19일에 김일성으로 명칭하고 1946년 8월까지 월남 시연단위원에서 일하시다가 평양에 올라와 문화예술 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 설악 선생하고 같이 일하시었다. 이 당시에 정선생은 소련 체코 폴로바끼아, 독일, 중국 등 여러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작가 예술동맹 대회들에 조선작가 동맹 대표들을 언술 하여가지고 참가하시었다. 이 당시에 갖 조직된 문화 예술동맹의 모든 조직규범과 활동원칙들에 대한 강령들은 소련 문화예술동맹의 규약강령대로 하였기 때문에 정선생의 활동 범위는 방대하였는데 그에 따라 선생의 혁신도 높았다.

1950년 8월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조동당 중앙위원회 명령에 따라 정선생도 군복을 입게 되었으나 문화예술언으로써 포병대로는 어중지위가 아닌 포병사령부 행정감독 부장직에 파견하니, 정선생은 「자기는 어 직무를 수행할 수없다」 하니, 타니 초련 고분 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으나 전쟁시기에, 유엔군이 총격하는바람에 다 북으로 도망친 고분 선생들을 어디에서 만난단 말인가? 월년 동안 군대복무에 군사참모는 돌아 데려가 되었으나 고생은 세상에 한 생하여 처음으로 가혹한 고생을 하였으나 선생의 자취 생각에도 군대에 어익권정은 하나없다고 생각하였다. 군대복무의 영예를 감추지 못하던 과거 예술동맹사임에 대하여 회고하던 중 1951년 말에 정선생은 원반군대에서 재역하여 공화국 문화선전성 차관의 직무에 임명되어 허정숙 선생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다. 이시기에 상업기업소들이 파괴되고, 농촌경리 수확과 전행으로 인하여 지하시여 공화국 전체 언변들과 군대는 더 말할것로 없이 허국의

원조로서 살아가는 형편에서 권업원과 사병들의 다죽어간 사기를 고취시켜 살기 길을 연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졌다.

문화 선전성은, 일방으로는 세계각국에 공화국 연인군대가 일차 공격서 패망당하고, 전지권에 넘어갔으나 아직 영국지알고 살아있다는 것과 농업도 산업도 파괴는 되어 폐허로 화해였지만 앞으로 복구하면 수백은 다시 영광 되며 유익일부 없던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해야 외국이 얼마만한 방조라도 받을수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화국의 각가지 사절단들을 조직하여 여러 형제국들에 파견하여야 되였으며, 그와 병행하여 외국에 많은 사절단들을 초청하여 나라의 처참한 환경속에서도 불굴의 연인은 유익이군 없던것을 진실을 보여야 하였다.

정선생은 전쟁의 어둡은 시기에도 혈맹을 다하여 예술 사업을 선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음악예술단들을 조직하여 외국에 파견하면서 그와 함께 갈아하여 각도시극에 순회 공연을 조직하는데 하였다. 저 최권방 전호 등에서 밤낮 터잡고 있는 구분대들에게까지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후방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알리 주었다.

1953년 4월 말에 정권은 성립되며 공화국적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사업은 그 경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 전쟁 3년간에 악조건에서 겨우 배려한 연인들은 그 지원용으로 전천에서 재빠리로 화한 공장을 복구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배후에 있어왔던 로동당 중앙 수뇌부는 권력 다룸에 사람잡이로 계속하고 있었다. 그 범죄적 행동은 소위 사냥검호란 명목하에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범죄적 악당들을 찬란한 애국적 령사를 갖춘 유구한 연인을 신입자, 불신용자, 중간형 삼등급으로 분별 하여 놓고 대일 수백 명의 간부들과 그들의 가족을 청산

후복 처단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정상진 선생은 계속 없는 법을
다하여 밀하였다. 사상 검출 운동이 전반적 반노단체로
넘어 갔을시 - 1955년 제 1/4 분기 봄에는 소련에서 나오신
문화선전 예술인들 - 정상진, 전동백, 기석복 선생들도
이 사상 검출 환경에 차넣게 되었다.

이상 선생님에 대한 사상검출 제독은 ~~남~~ 당의 문화
예술 라인에 있어서의 교조주의, 관료주의, 기회주의 및 가족
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라고 명명하여 놓고 조선의
실정을 하산없이 없어 소련식 기회주의 관료주의, 그에다가
허가이론 선취로한 소련가족주의, 지어는 소련을 자랑하
기 위하여, 그에 섞이기 좋아하는 사대주의 어외에
정상진 선생에게는 남한에서 어복에 들어오신 유명한
작가 예술인들로 그들의 실력대로 적당적책에 응용한
것을 특별한 비호정책을 썼다. 이것을 위하여 사상 검출
회의 결정에 쓰기로는 조선로동당 책벌에서 가장 엄중한
책벌 - 등기하는 엄중정근에 형식에서 철저하여 지교양
목적으로 하급 당단위에 접근시킬것기 라고 썼다.

부상 (취관) 직부에서 철저된 정선생은 약 2개월간 무직
으로 집에 앉아서 계시다가 중앙 도서관 관장으로 임명되
었다. 도서관 관장이란 본래 안전하게 앉아서 읽는 일과
이론이나 연구하는, 어떤 새로운 발명을 목적으로 하고
말을 놓고 늘을 가 취야 할 것이었으나, 김일성의 사상검출
에서 끝누를 다 놓치우고 위예중에서 아래급으로 내몰
렸으니 안심이랄 말과 연구란 말은 근사베르 물지 안았었다.
정상진 선생에게 2개월뒤에오는 소식은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또 누구는 지난밤에 잡혀갔고 하는 말외에는 일정답고 생동한
말 들은 들어오지 안았었다. 몇해전 부하 도서관장 직부는 높은직

무에서 흑 털어지면 그 장소에 와서 몇달동안 녹을 썩기 다간
 감옥이나 유형지로 가는 경박소나 달음없었다. 정상진 선생도
 이 직위에 와서 앓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어디로 내리 보내
 겠는지, 래일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 래일같이 손뚱뚱타를
 짚고 있었다. 래일 오전쯤에나 자기방에 와 앉아서서면서
 신문장과 화보등을 두적거리 나무쓰나 찾아보고, 점심에는
 사택에 갔다간 몸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대고 오후에는 어누
 가 가까운 친구가 자기로양되여 딸자리에서 쫓겨난사람의
 집에가선 서로 속상한 이야기, 어느 가까운 친구가 어디에 몰려
 가서 어떻게 고생한다는 이야기, 또 자기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 해에 되겠는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로 되풀이 하다
 간 열장소에 전화나 걸어 누가 자기를 찾아 안을지라고
 알아본 뒤에 곧장 집에 돌아가곤 하였다.

이렇게 정상진 선생은 평양중앙거리를 4년간이나 하여차
 만 하고 단년것이 원제는 중앙거리를 피하여 뒤시골목으로
 누가 연락있는 사람이나 앓우치지 앓는다 살리면서 속보를 살근
 -살근 걸어 도서관에 가곤 하였다.

성취하고 기뻐할일이 있을때에는 시간이 가는사어없이 바랄의
 흐르지만, 평양이 원능 선읍과 흔들려 섞인 혼란으로 모였된
 공기속에서 딱 멍쳐 서고 있는것같기도 하였다.

정상진 선생은 결심하기를 어린 악취속에서 좀 오래 있으면
 사상적으로 뒤죽만 썩을것이 아니라 창자로 복패리여 존경하는
 「아버이」 폴로들의 구두발에 진발되곤 할것어라고 생각하면서 자
 유로운 소련당에 항명하여야 된다고 생각 하였다.

1957년 8월에 정상진, 기석복, 정동혁, 김일, 영월봉, 박태섭,
 리춘백, 김용백 등 8명은 일체하게 소련정부에 극적으로 요구
 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1957년 10월에 소련정부의

국적에 대한 허가가 나오게 되자 이상의 8명은 평양을 출발하게 되었다. 소련으로 망명하여 들어오는 집단 중 제일 큰 - 8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소련공화국의 자들이" 지방 원곡을 데려오는 것 만큼 그들은, 특별히 정상진 선생은 자기 걸음의 안전성을 대단히 의심하였다. 정상진은 평양역에서 불어 안동역까지 도착하는 10시간 동안에 동반하는 짐작 수색을 최소화 당하면서 계속 걸고 있다가 중국 안동역에 건너와서야 한숨을 길게 쉬고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었다. 사실 그때 환경의 공기는 무시-무시 하였다.

연 8 일 동안을 걸어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정상진 일행 8명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지도원들이 맞아주었다. 북한에서 들어오신 선생님들 다 단화하시는 당중앙 지도원들에게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소위 '사업 프로그램서'가 있었다. 그 소위 '평정서'에는 직원들에 대하여 검찰소에 보내온 신고서처럼 써 보내였더라, 그 기록대로 한 한다면 정상진 일행 8명은 소련 당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다.

당중앙 조직부 지도원들은 평정서를 다 읽어 주고 끝으로 하는 말이 '우리들은 현재 조선 실정을 다 잘 알고 있으니 프로그램서 내용에 대하여서는 안심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당중앙 지도부의 지시대로 하뉴겐트 중앙 당학교에 가서서 4년간 공부를 하시라고 하였다. 4년간이면 강가에 물도 많이 흘러 갈터인데 그대에 따라 환경이 변할 뻔하면 조선에 또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어상 8명은 하뉴겐트 당 중앙 위원회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4년 동안 재교육 받는 다음 내년에 중앙 당학교를 졸업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정상진 선생은 코슬로프다시에 있는 '레닌기치' 선출사 선전부장으로 5년간 일

하시고 전근 되어 하직한 공화국 두남베시 주재기자를
1985년까지 일하신 다음 알나다에 옮겨온 「레닌기치」
신문사에 다시 들어가 현재까지 편집인으로 일하시고 있다.

정상진 선생은 자기 일생을 대중속에서 학창시절부터
문화 대중사회사업을 열성적으로 하여왔다. 현재에도 기본사
업은 고려인들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사업에 매달려서 주력
하면서도 고려인 민족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91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 계시는 허진 선생을 모시고 여진
에 북한에서 일하시다가 당시 소련에 들어와 계시는 전북한 간
부 가족들에게 가능한 정도에서라도 돕아주어야 된다는 절심으로
재노고려인유가족 후원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1991년
3월에 허진, 정상진, 강상호, 유성철, 남봉식 박병을 선생님들은
모스크바에서 유가족 후원회 창립에 대한 선언서를 발표하시고
유가족 후원회 위원장 직위에 정상진 선생을 추대하시었다.
정선생은 그 후 끊임없이 유가족 후원회 사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많은 유가족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많은 방조를 주고 있다. 1993
년 3월에는 유가족들의 행방불명된 세대주들의 행적을 해명
키위하여 그들이 명단을 작성하여가지고 유엔 인권옹호 위원회
한국 분과 위원장을 찾아 서울에 가서어서 그 명단을 제출하시
면서 끝까지 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시어, 그 후 1994년
여름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옹호 위원회 총회에
소련 고려인 유가족 위원회 명의로 참가하시면서 우리
행방 불명 간부들의 행적을 속히 해명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었다.

1992년 3월에는 전북한 책임적 간부들이 비록 해외
에 나와 망명생활은 하나 각국에 흐트러졌는 그럭렁이
대단하다는것을 인식하고 일본 동경에 계시는 박갑동 선



사진은 정상진 선생이 유명한 작곡가 김순남 선생 딸의 자택에서 장학봉, 박갑동 선생과 같이 1993년에 서울 방문시 촬영한 것이다.

생이 지도하에 수십명의 ^{학생} ^{학생} 간부들이 모스크바에 통역사
 «민족통일 구국전선» 조직에 대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제 1회
 창립 총회는 우선 민족통일 구국전선 상임 의장으로 박갑동 선
 생을 선거하고 부의장에 이상조, 서희 선생을 선거하였는데,
 정상진 선생을 사무총장으로 선거하였다. 총회 참가자들은
 민족통일 구국전선은 해외에 산재하여 있는 민족 의의들을 집결
 조직하며, 북한의 반연변적 파쇼정책을 폭로하며, 우리의 제 2
 세대들에게 한하여 구국전선은 정치적 사회단체로서 그들의 행
 동 강령을 감싸주는 수대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민족통일 구국전선» 창립된 후 정상진 선생의 활동범위는
 비할바 없이 넓어졌다. 선생은 각지역에 널려져 있는 구국전선
 하급단체와 간부들에게 적절한 문체와 당면과업들을 해결
 하여 주는 한편 적절한 조직적 문제도 해결하여 주기 위하
 여 소련 각지역에 돌아 다니셨으며, 그 외에 정상진 선생은
 구국전선 각대회를 조직 준비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등에 갔다시피, 그 외에도 구국전선과 유
 가족 후원회 문체로 서울, 캐나다, 러시아 등에 다녀
 왔다. 정상진 선생은 현재 80 고령에 이르렀으나 전
 강체에 원기 성대히 생존하고 있으며, 사업하고 있다. 15